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우성



“우리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성공 개최를 위해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일 것입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그토록 갈망하던 온 국민의 열원이 27일 새벽 드디어 이루어졌다.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응원을 벌이던 국내 응원단들은 세계박람회 기구(BIE)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날보가 전해지자 ‘파이팅, 여수 코리아’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온 국민 하나돼 이룬 퍼거

특히 여수시청 앞 광장과 전남도청 등지에 모인 응원단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밤샘 응원을 벌였지만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쁨에 넘쳐 응비하는 기상만 감지될 뿐이었다. 지난 2002년 12월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했다가 중국 상하이에 패배한 경험이 있는 그들이 지나 이번 퍼거가 더욱 값진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민·관 모두가 한데

뭉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 덕택이 아니겠는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는 사실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남도에서는 전남의 강점인 해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해양장기발전계

여수엑스포, 이제부터 시작이다

획을 마련중이었다.

이때 발전계획에 참여한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박사가 해양을 주제로 한 엑스포 개최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이 박사를 비롯한 기획팀은 선진지 벤치 마킹을 통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구체화했고 전남도의 노력 끝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략상 문제로 2002년 12월 첫 도전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여수는 다시 일어서 재도전에 나섰고, 실패를 거울삼아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

다. 일찌감치 정부유치위원회와 지역유치 위원회를 발족했고, 2002년 도전 때 힘을 합쳤던 정동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배전의 노력을 했다.

전남도지사, 여수시장을 비롯한 지역 단체장은 물론 지역 경제계, 지역민 모두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합쳤다. 뽐뿌 웅진 결과가 이번 퍼거로 돌아왔다.

하지만 진짜 찬치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언제까지 축매만 들고 있을 수 없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찬치는 앞으로 4년 5개월 뒤인 2012년 5월 12일부터 3개 월간으로 이어져 ‘여수 한국(Yeosu

Korea)’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인의 가슴에 아로새기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세계인의 가슴에 보다 확실한 감동을 심어줄 수 있는 관건은 성공 박람회 개최에 있다. 이것이 지역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유치 때 보다 더 큰 결집력을 발휘,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원, 부가가치 창출 4조원 등 총 14조원이다. 또 관람객 유치 797만명, 고용 유발 9만명 등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

빈틈없는 준비로 효과 높여야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우선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여수 일대를 미래형 해양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려 나가야 한다. 특히 박람회 부지의 사후 활용 계획을 명확히 해 여수항 일대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거점인 관광·레저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고흥·나로도 우주센터, 남해안 다리 박물관 등과의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풍부한 해양개발 자원을 갖춘 남해안 일대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사회간접자본을 충분히 확충, 관람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학교와 동시에 남해안권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도록 하는 일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한국 축구가 세계 4강 신화를 이룬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우리는 축구 하나로 ‘대·한민국’이 하나되는 감동을 만끽했다. 4년 5개월 후 차려질 여수 세계박람회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자.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심상돈



어깨관절은 쇠골, 경갑을 그리고 상완골 세종류 뼈의 삼위일체로 물통과 팔을 이어주며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관절이다.

특히 어깨는 운동범위가 넓은 반면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관절의 균형이 다른 관절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균형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회전근개란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근이라는 4개의 힘줄이 모여 하나의 힘줄처럼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시 상하 및 전후의 관절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과사용에 의한 손상 즉 ‘파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회전근개가 파열된 상태에서 삼각간에 의한 어깨운동을 할 경우 회전근개에 의한 관절의 안정성 유지기능

가지 방법 모두 통합의 결과가 비슷하다. 봉합 후 약 작기는 10% 많게는 40% 정도에서는 통합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으며 수술 당시 환자의 나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 대부분 환자의 경우 힘줄과 진단을 하면 힘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팔을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하신다. 이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큰 근육인 삼각간이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삼각간과 회전근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전근개가 파열된 상태에서 삼각간에 의한 어깨운동을 할 경우 회전근개에 의한 관절의 안정성 유지기능

어깨관절의 사회학

회전근개의 파열은 파열의 위치에 따라 부분층 파열과 전층 파열로, 크기에 따라 광범위, 대, 중, 소 파열로 나눈다.

문제는 부분층 파열이다. MRI 등 진단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층 파열이 더 많이 진단되고 있다. 또한 전층 파열에 비해 부분층 파열이 있는 환자가 더 아파한다. 특히 밤에 더 아파하며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심한 통증이 온다.

부분층 파열 환자를 별다른 치료 없이 관찰했을 때 80%는 전층 파열로 진행하고, 10%는 그대로, 나머지 10%는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치료는 전층 파열이건 부분층 파열이건 약 3~4개월 정도의 약물치료, 운동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로 치료한다. 즉 힘줄을 통합해 주는 것이다.

봉합 방법에는 크게 어깨에 4~5cm 정도의 상처를 통해 통합하는 방법과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두

의 소실로 간혹 어깨관절의 연골이 닳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로 통합을 해주는 이유도 파열로 인한 통증을 없애고 관절의 운동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잇몸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삼각간이 회전근개의 역할을 보조하기는 하나 대신 할 수는 없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분들 모두 본연의 임무와 부가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가적인 임무가 본연의 임무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삼각간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다하여 회전근개 파열을 방지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큰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병원 원장·2006년 11월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취업 서류전형때 사본 허용하면 구직자 경비 절감

구직자들의 경우 취업과정에서부터 수많은 서류가 낭비되고 있다.

인터넷이 생활화된 최근 취업원서 접수시에 기업들은 굳이 서류 원본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업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입사지원 서류를 1차 서류전형에 한해서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도록 하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줄

어들게 된다.

가령 영어 증명서 하나만 발급받아도 비용이 상당하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진촬영비용도 보통이 아니다.

따라서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을 제출해 해도 되는데 굳이 필요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각 기업체에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50배 과태료’ 무겁다 생각말고 금품·향응 받지 말자

뉴스나 지문지상에서 5천원짜리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 50배인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거리가 접해봤을 것이다.

제공 받은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과태료에 비해 공직선거의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과급효과 등과 과거의 잘못된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으로서 의미가 가미되어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과태료 부과는 주로 기부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정책대결이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이 아닌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돈 선거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

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흥보를 통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나 50배의 과태료 부과 등을 국민 대변으로 밝힐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이 이런 기부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문화가 지속되는 한 후보자들도 이를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런 후진적인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성민·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시설

여수엑스포 신성장 동력 받는 계기 삼자

‘여수의 꿈’이 이뤄졌다. 여수가 27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기구(BIE) 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모로코 탕헤르를 누르고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된 것이다.

파리에서 날아온 ‘여수, 코리아’의 낭보는 정·관계, 세계 그리고 여수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합심한 노력의 산물이다. 5년 전 ‘201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상하이에 분배했던 아픔을 딛고 이룬 평화여서 더욱 뜻깊다.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유치단과 여수 시민에게 성원을 보낸다.

엑스포 부지와 시설조성에 1조 7천억 원, 전선선 복선화, 국도 17호선 확장, KTX 연장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7조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수엑스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외국 기업 및 관람객 유치전략 역시 중요하다. 외국 관람객 유치 실패로 국내 진전으로 끌어들인 과정은 물론이다.

여수엑스포는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남해안이 국제적 관광명소

로 부상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지역발전을 30년 앞당겨 광주·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남은 과제는 여수엑스포의 활력을 국가·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빈틈없는 준비를 나서야 한다.

엑스포 부지와 시설조성에 1조 7천억 원, 전선선 복선화, 국도 17호선 확장, KTX 연장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7조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관광객 유치전략 역시 중요하다. 외국 관람객 유치 실패로 국내 진전으로 끌어들인 과정은 물론이다.

여수엑스포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후보들의 말을 끔찍이 보면 수도권에서 다르고 지방에서 다른 모습까지 드러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비수도권의 공동체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달 초 서울에서 대규모 연합집회를 갖고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균형발전 요구 서명에는 전국에서 무려 1천만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후보들은 솔직해야 한다. 정책선거가 실종됐지만 지방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알아야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선인지, 균형발전이 우선인지를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無等鼓

프로스포츠와 아마추어스포츠를 대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돈’이다. 경기에서 달성하는 기록과 승리, 명예도 소중히 여기지만 프로들은 역시 ‘소득’이 먼저다. 뭐라도 상금이 실력을 재는 척도다. 따라서 세계적인 프로스포츠 스타들은 갑부소릴 들을 정도의 재산으로 영화를 누린다.

프로선수 중 최고의 재력가는 두말할 나위없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다. 그가 지난 1996년 프로데뷔 후 벌어들인 상금이나 스냅서 수입과 광고 등을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하며 월 1년 수입만 해도 1억 1천만달러가 넘는다. 시즌 상금만 1천만달러가 넘는데, 그 상금을 출전한 16개 대회에서 휴두는 스윙 횟수로 나누면 골프채를 한번 휴두를 때마다 240만 원 가량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의 골프채는 뚝딱하면 금이 나오는 도끼비방망이이다.

프로선수를 위한 조건은 그들이 부여되는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스타들이 수입증 상당부분을 정기적으로, 그것도 자국뿐아니라 전세계 자선사업에 할애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최근 100억원을 벌어 차선제단을 설립한 골퍼 최경주는 ‘기부왕’으로 불린다. 한국여자골프상 최초로 10억원이 넘는 상금을 벌어들인 신지애도 별명이 ‘기부천사’다. 둘 다 우리 고장 전남 출신인데, 세계에 내놓을 만한 랭킹선수 한국인이다.

기획호 체육·여론매체부문 kihh@

스포츠와 富



드래 애거시와 여자선수로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 등이 천문학적인 재력을 자랑하며 ‘부호(富豪)선수’의 대열을 이루고 있다. 전세계 팬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차사를 받는 이유다. 그들은 단지 천재적 재능 때문에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